

서울숲컨서번시

인터뷰 서울숲에서 만나요

서울숲 녹지 매니저 박지연 인터뷰
서울숲공원을 '좋은 공간'으로 만듭니다.

서울숲 소식

순환하는서울숲 #1 식물쓰레기의 재활용
서울숲 은행나무숲길 간벌 안내
서울숲공원, 성동경찰서 합동 안전 점검
신규 정원 '쉬었다가길' 조성

서울숲 다시보기

사람과자연모두가안전하고 행복할수있는서울숲을 그려요
서울숲 그린 피크닉 데이 행사 리뷰

서울숲 동물농장 '꽃사슴' 소식



[인터뷰 서울숲에서 만나요]

서울숲 녹지 매니저 박지연 인터뷰

서울숲공원을 '좋은 공간'으로 만듭니다.

먼저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서울숲공원 1구역팀에서 녹지관리업무를 하고 있는 3년 차 매니저 박지연이다.

지금도 삽을 들고 계시는데, 주로 하시는 일이 무슨 일인지 궁금하다. 혹시 삽질인가? (웃음)

주로 하는 일은 녹지 유지관리, 정원조성인데, 맞다. (웃음) 삽질을 정말 많이 하고 있다.

입사를 하자마자 현재의 '모퉁이 정원', 당시 '박지훈 벤치가든'을 조성했던 걸로 안다.

그땐 너무 입사를 하자마자여서 살짝 멘붕이 왔던 기억이 있다. 이전에 기업에서 꽤 오랜 기간 주거 공간을 기획하는 일을 했었고, 입사하기 전에는 정원 조성 관련 교육을 받고 관련된 일도 짧은 기간 했었다. 하지만 이렇게 넓은 야외 공간에서 정원을 기획하고 디자인하는 업무는 처음이라 뭐가 뭔지도 모르고 정신없었던 것 같다.

박지연 매니저와 인터뷰를 하고 싶었던 이유가 바로 그 '공간 기획'에 관한 궁금증 때문이다. 공원은 공공녹지인데 깨끗하게 잘 관리하면 됐지 공원 내에 왜 정원이 조성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 시민 모두가 누리는 공공녹지라는 차원에서 공원이 볼거리를 추구하는 게 맞나?

볼거리라는 의미도 있지만, 단순히 그것 때문에 정원을 조성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옛날 공원 같은 경우에는 큰 나무랑 그 하부 식생, 맥문동이나 호스타 정도만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평면적인 것, 단편적인 역할을 넘어 더 많은 걸 줄 수 있는 공원이 필요하게 된 게 아닐까 생각한다. 사람들이 어떤 공간에 갔을 때, 거기에 담긴 이야기를 알게 되거나 폭 넓게 경험하고 위로받고 싶지 않을까?

정원 조성이 이야기를 전달하고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이야기인가?

그렇다. 서울숲을 보면 나무가 되게 많은 데도 있고, 양지도 있고, 물가도 있고, 엄청나게 다양한 생태적 환경들이 공원 안에 있는데, 그에 맞게 그 주변의 이야기를 담은 새로운 공간들이 생기는 거다. 그 이야기에 따라 식물의 종류도 또 달라진다. 공원이 풍부한 이야기와 경험을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그냥 지나칠 공간도 안내판이나 정원 설명서 한 번 더 보고, 생각하면서 걷고, 또 그런 식물이나 이야기로부터 위로받을 수도 있다.

그래도 여전히 왜 공원이 정원 만드는 일을 해야 하는지, 완전히 설명되지 않는 것 같다.

내 생각에는 '뭇 때문에 필요해졌다.'도 있지만, 변화하고 진보하는 거라고 본다. 예전에는 삭막한 도시에서 공원이 단순히 '쾌적한 자연



△ 녹지 1구역팀 박지연 매니저

에서의 휴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충분했다면, 지금은 적극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주기 위해서, 공간도 그런 식으로 테마가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식물들도 다양하게 하고, 이야기도 잘 가꿔서 전달하는 식으로 발전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나무가 울창한 데서는 내가 정말 깊은 숲속 오솔길을 걷는 듯한 기분이 들게 산책로 분위기를 그런 방향으로 극대화할 수 있고, 또 우리꽃길 같은 데를 보면 옛날 할머니 댁에서 봤던 작은 화단을 떠올릴만한 식재와 디자인으로 그런 느낌을 전달하기도 하는 거다. 그렇게 위로와 감정, 상상력을 끌어내고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이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그런 의도 하에 '좋은 공간으로서의 정원'을 기획하고 조성하고 있는 건가?

그런데 정원을 만들면서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정원만 혼자 동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다. 크게는 서울숲만의 고유한 특색을 살리고 환경을 담은, 또 작게는 조성될 부지의 주변 환경을 반영한 공간을 기획하려고 노력한다. 조성 부지에서 뭘 조망할 수 있고, 어떤 나무가 있고, 큰 동선과 닿아 있는지, 작은 동선인지, 사람들이 얼마나 지나가는지, 이런 것을 두루 파악해서 아우를 수 있어야 좋은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이전에 기업에서 공간기획을 했던 것이 서울숲에서 일하는 데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

서울숲에서 일하게 됐을 때 이렇게 넓은 바깥 공간이 처음이긴 했지만 큰 개념은 비슷하다고 느꼈다. 차이점이 있다면, 바깥이고, 식물이 있고, 자연이 있다는 것. 그러한 차이를 종합해서 좋은 공간을 만들어 내려고 했고, 처음 입사했을 때부터 서울숲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서울숲에는 테마가 있는 정원도 물론 많지만 대부분의 공간은 '평범한 녹지'다. 이런 공간들도 모두 정원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 건가?

공원을 전부 정원으로 만들 수 없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일부 공간, 적재적소에 테마를 잘 살리면서 주변과 어우러지는 정원을 만들어, 주변에 생기를 주고 전체를 변화시킨다. 정원의 테마와 특색도 주변과의 어우러짐 혹은 대비를 통해 더 특별해질

▽ 2019년, 기업의 후원으로 조성된 서울숲 설렘정원



△ 2017년, 기업의 후원으로 조성된 서울숲 어린이정원

수 있다.

그리고 사실 정원은 관리가 정말 힘들다. 손이 굉장히 많이 가서 면적 대비 관리 효율이 낮다.

어떤 면에서 비효율적인가?

서울숲에 테마가 있는 화단보다 테마가 없는 화단이 훨씬 더 넓지 않나? 일반 녹지대와 화단을 관리하는 것과 별개로 시간과 노동력을 들여서 정원관리를 별도로 해야 하는데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할 때가 많다. 아무래도 일반 녹지대 관리는 보통 관수와 잡초제거 위주의 작업이라 심플하다. 근데 정원은 대개 여러 가지 식물들이 섞여있고, 각자 관리해야 하는 시기나 내용이 다르다. 그러니 정원 관리는 면적 대비 훨씬 더 많은 시간, 많은 손길을 요하는 거다. 정원은 관리면에서는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의 비효율성을 상쇄할 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건가?

그렇게 생각한다. 다만 정원의 면적을 넓게 하고 수는 줄이는 게 공간 기획의 면에서, 또 관리 효율 면에서도 나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최근엔 입사하자마자 처음으로 조성했다던 그 '모퉁이정원'을 재조성한 걸로 안다. 그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고 싶다.

모퉁이정원은 처음에는 워너원 박지훈 팬클럽의 기부로 조성된 벤치가든이었다. 처음에 잘 모르고 정원을 만들기 시작할 때는 힘들기도 했지만 사실 보람도 있고 굉장히 재미있었다. 근데 정원 하나가 만들어지면 이걸 계속 유지관리해서 정원이 점점 무르익고 예뻐져야지 되는데 그게 잘 안됐다. 처음 완공된 당시에는 저도 아직 미숙해 그때 토양 상태가 어떤지 이런 걸 파악하지 않고, 토양개량을 하지 않은 채 그냥 땅 파서 심기만 한 거다.



△ 2019년 조성한 '모퉁이정원'은 최근 토양 개량, 경계목 설치 등의 작업을 통해, 식물 생육 및 경관 개선을 위한 재조성을 마쳤다.

정원 조성할 때 처음에 토양개량을 해야 하나?

그렇다. 토양개량이라는 게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일단 흙을 파서 너무 영양가가 없다면 부엽토나 퇴비를 주고, 너무 건조할 것 같으면 물을 많이 머금을 수 있는 소재를 섞기도 한다. 그렇게 좋은 흙으로 만드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모퉁이정원 같은 경우에는 굴삭기로 돌만 고르고 식물만 배치해 심은 거다. 처음엔 뭐가 문제인지 몰랐는데 여름이 지나니까 식물 절반이 죽는 거다. 원인은 모른 채 식물이 죽은 자리에 새로운 식물로 보식만 했는데 다음 여름이 되니 또 식물 반이 죽었다. 그리고 다시 올해 봄이 되었는데 새싹이 안 올라왔다. 그러니까 겨우내 식물들이 또 죽었다는 거다. 그래서 연구 끝에 두 가지 문제를 발견했는데, 하나는 토양개량을 하지 않은 것, 두 번째는 답압(식물 밟힘)이었다. 그땐 미숙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정원에 많이 들어 올 줄 몰랐다. 화단과 보행로의 경계나 단차를 주지 않았더니 식물들이 정말 많이 밟혔는데, 답압으로 그렇게 식물이 많이 죽을 줄도 몰랐다. 이 두 가지를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우선 땅을 파보니, 배수가 안 되는 토양이란 걸 알아내게 됐다. 그래서 우선 배수가 안 되는 점질토를 30cm정도 파내고 배수가 잘 되는 사질 토양을 대신 넣고, 주변에 배수로를 파 물이 잘 빠지도록 했다. 또 답압을 개선하기 위해서 기존에 없었던 화단 경계를 만들고 지대도 높였다. 배수 문제를 발견하면서 본의 아니게 대공사를 하게 되었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문제가 개선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들가에서만 사는 식물도 있지 않나? 배수가 잘 안 되는 땅에서도 잘 자라는 식물로 바꿔 심는 게 더 간단하지 않나?

이렇게까지 해도 실패하면 그럴까 한다.(웃음) 이번에는 조금은 욕심을 부린 것 같기도 하다. 서울숲에서는 첫 정원이라. 그리고 계속해서 심어보지 않았던 식물, 접해보지 못했던 것, 새로운 식물을 서울숲에 심어보고 있다. 모퉁이정원은 나무가 많은 서울숲에서는 드문 양자다. 이런 공간이 흔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식물들을 다양하게 심어보고 맞는지 알아보고 새로운 식물로 새로운 분위기를 디자인해보고 있다. 개인적으로 식물에 관심, 욕심이 좀 많다.(웃음)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하다.

가을에 '느린 산책의 정원2'가 생긴다. 1은 작년에 조성했던 테마가 수국인 '수국길'이고, 2와 3까지 3개년 계획이 있다. 그중 2번째가 올가을에 만들어질 건데, 서울숲 안에서 나의 소임은 '가장 서울숲스러운 공간'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한다. 수국길, 모퉁이정원 등,

서울숲 부산물로 경계목을 만든 화단이 여러 군데 있다. 그리고 수국길은 특히 서울숲에 울창한 나무들을 되게 잘 활용한 공간이라고 생각한다. 또 서울숲 이끼라든지 이런 걸 캐 와서 쓰기도 했고, 되도록 자생식물을 활용했다, 그런 것들이 공간을 주변과 어울리게, 그리고 '서울숲스럽게' 만들어주는 것 같다. 이렇게 서울숲의 특색이 살아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내 소임이고, 그래서 가장 서울숲스러운 '느린 산책의 정원2'를 수국길 옆에 만들어보고 한다. 개인적으로는 자연의 일부를 톡 떼어다 놓은 것 같은 느낌을 내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세련된 디자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공부하고 있다.



△ 2020년, 기업의 후원으로 조성된 느린 산책의 정원1 수국길

끝으로 혹시 서울숲공원 방문객들께 바라는 게 있다면?

너무 1차원적이긴 한데 (웃음) 식물을 밟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다. 서울숲 화단을 내 집 화단처럼 아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아름답고 이야기가 있는 정원을 가꾸는 걸로 보답하려고 한다.

서울숲 녹지팀은 서울숲 전체의 녹지를 기획·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터뷰의 주인공 박지연 매니저는 이전에 기업에서 주로 실내공간을 기획하고 디자인하는 일을 해왔으며, 서울숲에서 이전의 경험을 살려 다양한 야외 공간(정원, 화단 등)을 디자인, 관리하고 있습니다. 좀 더 나은 공간,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위안을 선물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을 디자인하는 박지연 매니저의 노력을 응원해 주세요.

[서울숲 다시보기]

사람과 자연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는 서울숲을 그려요 #서울숲 #환경의날 그린피크닉데이 행사



서울숲공원에서 진행된 2021 그린피크닉데이 행사는 '사람과 자연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는 서울숲을 그려요'를 주제로 2021년 6월 5일, '환경의 날'에 맞추어 진행되었습니다.

2021 그린피크닉데이는 서울숲을 통해 자연과 사람이 좀 더 안전하게 가까워지는 방법들을 소개한 행사로, 코로나로 지친 사람들을 위로함과 동시에 코로나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방역지침을 준수해 진행했습니다.

'지구 위에 흙 내 발 아래 땅'은 맨발로 땅 위를 걸어보는 경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준비했다. 숲속에서 맨발로 흙을 밟으며 다양한 감각을 통해 자연을 만나보는 기획으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우울감을 자연 속에서 위로 받고 극복할 수 있는 시간을 선사했다.



'그린존'은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해 오랜 시간 마스크로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투명 판 너머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며 애정 어린 시선으로 깊이 바라보는 시간을 선물했다. 답답한 일상 속 소중한 사람들의 얼굴을 다시 보고 오래 볼 수 있는 힐링의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



성수동에서 활동 중인 제로웨이스트샵 '더피커'와 함께 한 '그린피크닉 상점'은 과도한 편의주의를 벗어나 지속 가능한 소비와 삶을 소개하는 전시로 기획되었다. 또한 일회용 플라스틱컵을 재사용하는 셀프 가드닝 체험도 함께 진행되었다.

그밖에도 '클린에코존 캠페인', '어제의 플라스틱', '모아모아 쓰담쓰담' 등 환경의날을 기념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다양한 캠페인이 진행되었다.

서울숲 그린피크닉데이는 일상이 답답하고 힘들었던 많은 분들이 자연 속에서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고, 더불어 지속 가능한 초록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에 대해 알아보고 체험도 해볼 수 있는 행사로 마련하였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많은 분들이 서울숲에서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고, 환경에 대해서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움직이는 숲조각'은 서울숲의 자연물을 활용한 공방 프로그램으로, 서울숲에서 가지치기 하거나 버려진 자투리 나무 등을 활용해 모빌을 만드는 시간을 가졌다. 자연을 소비하는 행태에서, 새로운 쓸모를 만들어내는 전환을 경험하는 작지만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사육사와 함께 알아보는 동물 친구들의 짧은 근황

서울숲 동물농장



최근 꽃사슴들 사이에서 인기 만점의 간식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서울숲에서 난 살구입니다. 살구가 나는 시기인 6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익어서 떨어지는 족족 귀여운 꽃사슴들의 간식이 됩니다. 꽃사슴이 지금 먹고 있는 살구는 생태숲 안에 있는 3그루의 살구나무에서 떨어진 것들입니다. 기미를 해 본 직원은 '맛있다가에는 다소 싱거운 맛'이라는 후기를 남겼습니다.

사육사 한 마디: "과일농사를 지어야 하나....."



[순환하는 서울숲♻️] 1편

식물 쓰레기의 재활용!



공원에서 매일 하는 일상 작업 중에 제초(풀뽑기), 예초(풀베기), 전정(가지치기) 등의 작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기서 발생한 식물 부산물, 즉, 식물 쓰레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계신가요?

순환하는 서울숲 첫 번째 이야기, 식물 부산물(=쓰레기)의 재활용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 '순환하는 서울숲'은 식물 쓰레기의 재활용, 식물 재생산, 생태계 순환을 위한 유기농법 등, 환경을 위한 서울숲의 공원 운영 방식입니다.) 서울숲에서 일반 관람객의 통행이 제한된 생태숲 한켠과 퇴비장에서 식물 부산물을 파쇄하고 숙성해 퇴비로 활용하거나, 파쇄목을 멀칭재로 활용하거나, 전정할 가지를 모아뒀다가 장식품이나 울타리 등으로 재사용하는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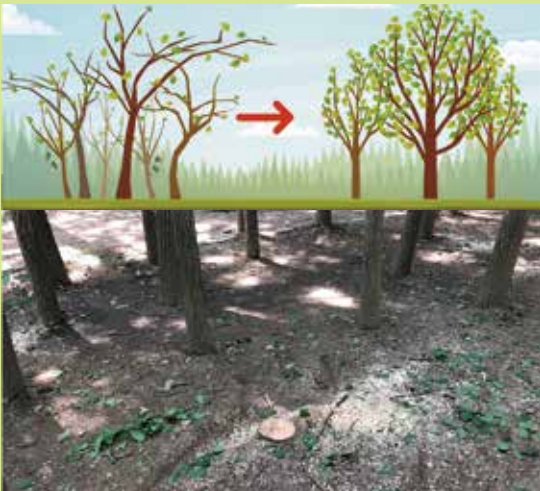
오래된 낙엽, 예초 후 나온 풀들은 어찌보면 쓰레기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속에 작은 곤충이나 미생물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퇴비화를 시켜주면 공원의 토양을 비옥하게 하는 거름이 됩니다.

비바람에 부러진 나뭇가지나 가지치기 한 나무들도 버리지 않고 재활용합니다. 나뭇가지들을 파쇄해 얇고 부드러운 나무조각으로 만들어 멀칭재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멀칭이란 흙을 덮어주는 것으로, 땅의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주고 잡초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크고 작은 나무들은 규격별로 모아서 서울숲 내 정원의 장식품으로 쓰거나 울타리목으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서울숲 꽃사슴과 토끼들의 똥을 모아 퇴비로 만들어 사용하기도 합니다.

친환경적인 공원운영을 위한 '순환하는 서울숲' 첫 번째 이야기, 식물 부산물 재활용편은 서울숲공원 유튜브채널을 통해 전체 영상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은행나무숲을 건강하게!

서울숲의 은행나무숲길은 직선으로 높이 뻗은 뻣뻣한 은행나무들로 사계절 모두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서울숲의 명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뻣뻣함'으로 인해 은행나무의 건강이 나빠지게 되었습니다. 은행나무들이 서로 경쟁하는 환경이 되어 일부 은행나무들은 휘어지고 힘이 약해져 위험수목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에 은행나무를 일부 간벌(숙아주기)하여 은행나무숲 전체의 건강성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은행나무 간벌은 앞으로 3~5년에 걸쳐 천천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은행나무숲이 다시 건강해지는 모습을 지켜봐주세요!

서울숲

NEWS



서울숲공원, 성동경찰서 합동 안전 점검 실시

지난 6월 성동경찰서와 함께 서울숲 곳곳을 돌며 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CCTV, 비상벨의 작동을 체크하고, 화장실 몰래 카메라를 탐지하는 등, 더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들기 위해 성동경찰서와 협력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숲

NEWS



서울숲에서 '쉬었다가길'

서울숲 내 체육공원 부근, 울창한 나무 그늘로 시원한 신규 정원, '쉬었다가길'이 조성됩니다. 스타벅스의 후원으로 조성되는 정원 '쉬었다가길'은 7월 초순 경 준공 예정입니다. '뛰다가 숨이 가빠지면, 잠시 쉬어가세요. 숨이 벅차 올 때면, 크게 숨 한 번 쉬고 가세요.'



서울숲 야간 숲 탐험

팍팍하고 더운 여름 밤 서울숲공원에서 벌어지는 특별하고 신비한 자연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7월 23일(금), 24일(토), 30일(금), 31일(토), 8월 6일(금), 7일(토)
시간: 20:00 ~ 21:30 1시간 30분 진행
대상: 어린이 포함 가족
신청: 서울시공공서비스예약



물길따라 떠나는 여름꽃 여행

서울숲의 물길을 따라 여름꽃을 만나보는 시간, 서울숲공원의 여름꽃 이야기를 들어 보세요!

매월 셋째 주 수, 목, 금요일 11:00 ~ 12:00
장소: 서울숲이야기
대상: 성인 (10명)
참가비: 무료
신청: 서울시공공서비스예약

서울숲 YouTube 채널 구독 이벤트

서울숲공원유튜브채널구독하고 방문자센터에서 선물을 받아주세요!



서울숲 소식지 구독자 설문 당신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소식지를 읽은 소감, 제안하고 싶은 내용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서울숲 소식지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